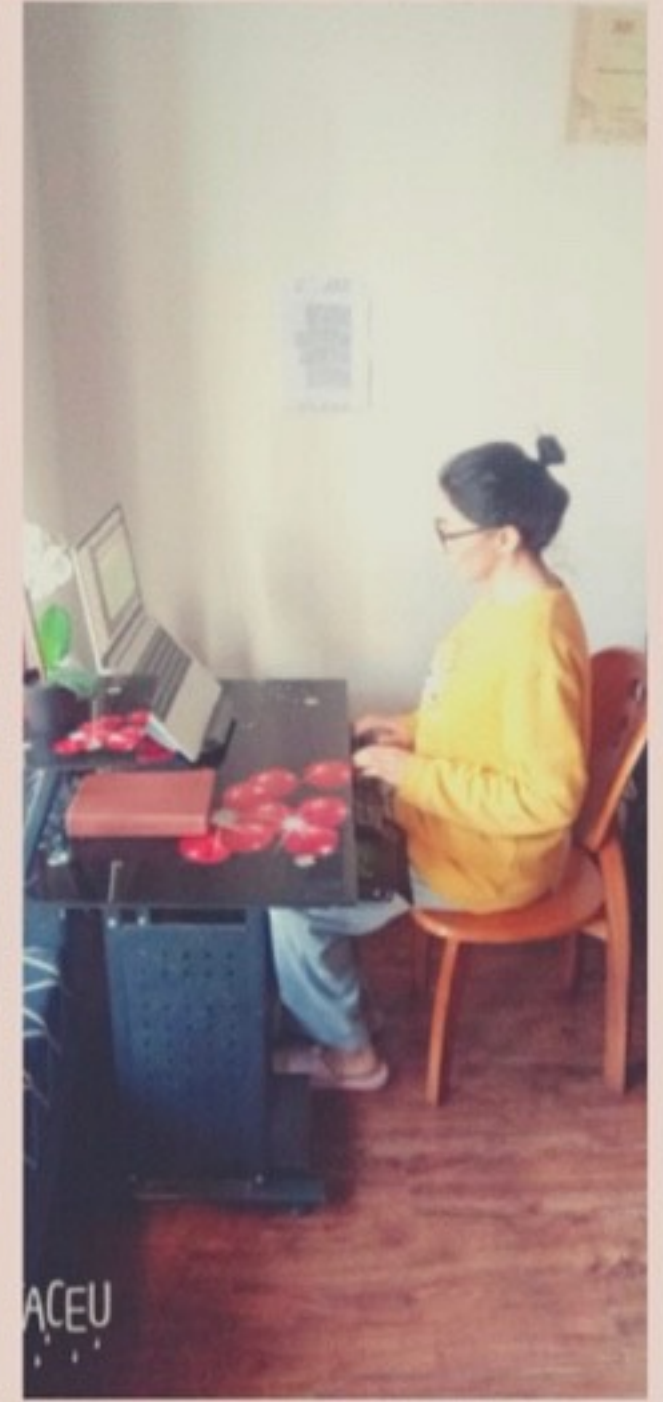


제 7c 요청은 인명 지명 등을 보안처리했지만 여전히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WWW, SMS, 간행물 등에 게재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역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체류 기간에 한국 연락처(010-8696-7719)로 연락주시면 만나뵙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상현 센터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예라 자매

7월에 예라 자매는 상현 센터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동안 런현의 지역 교회에서 사랑과 훈련을 받고 신앙이 많이 성장한 예라는 기쁨으로 상현 센터를 향해 나아갑니다.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아들인 초놀을 혼자 키우며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거처가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초놀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두려움과 불안이 예라 자매인 엄마에게 때로는 반항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초놀을 위해서도 간곡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초놀과 예라 자매

## 따오현에 부흥을...



따오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린형제 내외는 더 많은 동역자가 따오현에 합류해 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남부 캄 지역에 들어가 생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만큼 함께 그곳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서 속히 더 많은 현지 지역 교회의 사역자들이 따오현으로 부르심 받기를 위해 함께 손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는 봉쇄가 막 풀린 상해 지역 교회 청년들이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따오현으로 단기 선교를 오게 됩니다. 룡장네 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단기 선교 기간내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린 형제 내외의 딸인 3살 가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산 지역에 잘 적응하여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써라 자매의 아버님이 얼굴과 한쪽 몸이 붓는 등 편마비 증세가 와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어서 속히 성도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서 진찰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찰에서 처방해준 허브만을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송이버섯을 채집하는 계절이라 돈이 되는 일손을 내려놓고 성도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주저스러우시지만 써라의 권유로 속히 병원에 가실 수 있게 되기를... 힘든 시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